

생활 이야기

퇴근 길에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콩트 한 구절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콩트의 내용은, 몸살 기운이 있어 잠시 누고 있던 엄마에게 아이들이 “엄마, 이것.. 저것..”하며 귀찮게 했고, 엄마는 아이들에게 '오늘 엄마가 몸이 좀 않좋으니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고 잠시 누어 있으려 했으나 아이들은 계속해서 사소한 것 하나에도 엄마를 귀찮게 했습니다. 마침 퇴근해 돌아온 남편에게 아픔을 호소하고 아이들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지만, 남편마저 이것저것 아내에게 요구하며 귀찮게 했고 마침내 화를 참지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아픈 아내 옆에서 미움을 기대했던 아내의 기대를 저버리고 중국집에 음식을 주문해 결국은 아내를 서운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비단 저 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수고로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가 보았던 어느 전업주부의 아래와 같은 글이 생각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애들 잠자리를 준비하고 과일을 부지런히 깎고 나서 시계를 보니 9시, 나는 세 식구 모두 듣게 큰 소리로 '엄마 퇴근합니다!'라고 외치며 앞치마를 벗는다.

우리 집에서 '엄마 9시 퇴근제'를 시작한지 3년 정도 된 것 같다. 퇴직을 하고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업주부가 됐는데, 사소하고 잡다한 집안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의논한 후 드디어 약속하기에 이른다. 준비해 놓은 것 이외의 늦은 밤 간식은 아이들이 스스로 챙기거나 라면 같은 것은 아빠가 기꺼이 맡아 끓여주기로 하고 엄마의 9시 퇴근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의 일이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양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어느 날 온 식구가 늦은 외출에서 돌아와 요기 거리를 챙기는데, 작은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 묻는다. "엄마!, 오늘은 퇴근 안 하시나요?" 그 모습이 귀여워 하하 웃으며 "오늘은 사랑의 특별 근무랍니다." 라고 대답한다.

엄마가 퇴근 후 무엇을 할까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다. 특별히 요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과 나란히 엮드려 책을 읽거나, 네 식구가 같이 텅굴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컴퓨터가 있는 공부방에 들러 밀린 일을 한다.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나를 비롯한 식구들의 생각이 달라졌을 뿐이다. '엄마의 9시 퇴근', 365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규칙도 아니다. 가족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끝없는 엄마(아내)의 가족 수발, 그 보상은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말은 한번 엄마(아내)의 수고를 나눠보는 것이 어떨지요.....

暮らしの話

退勤道につけて置いたラジオから流れ出たコント一句節にぎくりとしました。コントの内容は、
疲れて少し横になって休んでいるお母さんに子供達が“ママ、これ.. あれ..”しながら迷惑をかけたし、ママは子供達に”今日はママが体の具合がちょっとよくないから君たちどうして遊びなさい”して少し横になろうとしましたが子供達は続けてちょっとしたことでもママに迷惑をかけました。

ちょうど帰って来た夫に痛みを訴えて子供達の面倒を見ることを頼んだが、ご主人さえあれこれ妻に要求しながら迷惑をかけたし遂に怒りを堪え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妻がご主人に子供達の夕飯を準備しなさいと声を上げると夫は痛い妻のそばでお粥を期待した妻の期待を忘れて中華料理店に食べ物を注文して結局は妻を淋しくさせたというそんな話でした。

まさに私自分の話みたいでした。私だけの話ではない気がします。

その間あまりにも当たり前に思った妻の苦勞さに対してもう一度考えて見ました。

いつが見たことがある専業主婦の下の様な文が思い出して整理して見ました。

夕方、お皿を洗って子たちの寝る準備して果物を手まめに削ってから時計を見たら9時、私は三人の家族皆が聞くように大きい音で’ママ帰ります!’と叫んでエプロンを脱ぐ。

我家でも’ママの9時退勤制’を始めてから3年位になったようだ。

退職をして結婚10年ぶりに初めて専業主婦になったが、ささいで雑多な家事はしてもしても終りがなかった。

それで家族たちが集まって議論した後いよいよ約束するのに至る。

準備しておいたこと以外の遅い夜のおやつは子供達が自らめんどうを見るとかラーメンみたいなことはパパが喜んで引き受けて作る事にしてママの9時退勤を始める事にした。

子供達にもママの仕事が無敵大ではなく決まった時間と量を持つしかないことを知らせたかった。

ある日、全家族が遅れた外出から帰って来て食べ物を準備する時、下の子がちょろちょろ駆けて来て問う。

“ママ!、今日は退勤しないんですか?” その姿が可愛くてハハ笑って”今日は愛の特別勤務です。”と答える。

ママが退勤後、何をするか気になる人もいる。特別に騒々しい事をするのでもない。

子供達と並んで伏せて本を読むとか4人の家族と一緒に寝転びながらテレビドラマを見るとかそれでもなければコンピューターがある勉強ルームに立ち寄って滞った事をする。実は何も変わったことはない。

私を含めた家族たちの考えが変わっただけだ。

’ママの9時退勤’、365日徹底的に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強制規則でもない。

家族たちがお互いにお互いの役目を少しでももっと理解しようとする心を持って見ようというところ、その意味がある。

果てしないママ(妻)の家族手伝い、その補償はママの心情を少しでも理解して見ようとするところにあるでしょう。

週末は一度ママ(妻)の苦勞を分けて見ることは如何ですか.....